

토론 수업의 기초 과정 설명 -토론을 이해하자

토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 수업 중에는 상호작용이 중점이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토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토론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담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토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생각을 깊이 있게 잘하면 당연 말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그림책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생각을 자극하면
아이들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토론은 딱딱하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할말이 많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어야합니다.

이번 애프터 연수 수업의 경우, 그동안 아이들이 많은 수업을 해왔다면
스토리텔링 능력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스토리텔링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당연히 어휘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스스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단어와 단어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문장으로 제시된 문제들에 키워드를 인식하고
그 키워드 간에 상관관계를 생각한 후 나는 그 문제에 또는 적절한 생각에 부정적 말을 할것
인지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알수 있습니다.

토론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애프터 수업 연수 시 토론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조금 정리해드립니다.

토론의 하나인 형식 토론입니다. 돼지책의 이번 수업은 형식 토론의 일부를 적용한 것입니다.

1. 돼지책에서 말한 것처럼

엄마의 입장, 아빠 아들들의 입장으로 감정이입하여 왜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는지 각자 감정이입이 된 상태로 그들을 대변해야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토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글이든 상황에서도 문제를 발견해야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면서 발견된 문제는 궁금증이고 호기심입니다.

토론의 가장 1단계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궁금해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등장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감정이입을 통해 대변을 시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말 저말 하게 됩니다. 그 말 속에서 문제는 발견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서 발언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 교사가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문제가 될만한 것을 찾아 2단계 토론을 위한 문제제시를 해주어야합니다.

2단계는 문제제시입니다. 1단계에서 이야기를 막 나누다보면 당연히 제시할만한 문제들은 나오게 됩니다. 교사가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이제는 그 문제에 벗어나지 않는 그 문제해결과 연관된 발언만 하여야합니다. 1단계는 등장물 감정이입으로 그 등장물편이 되어 대변하다보니 이말 저말 자기 중심적인 말 배려적인 말 뭐든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제시에 중점은 꼭! 그 문제를 벗어난 발언은 교사가 제제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론의 의미도 없을뿐더러 아이의 토론능력, 즉 정확한 발언 능력은 향상될 수 없습니다.

언어능력은 무한한 자율성이 있으나 분명한 건 정확한 발언은 어디에서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율성이 정확할 수 있도록 (즉 일반화나 타당성에 근거) 문제제시를 통해 토론을 하게 됩니다. 1단계 궁금증 호기심 자극을 위한 자유 발언의 기회제공

2단계 1단계의 자유발언에서 얻어진 문제를 찾아 정확한 문제제시입니다.

이번엔 사자와 생쥐의 책의 연수에 일부 적용 된

자유토론입니다.

먼저 자유토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사진, 그림, 동영상의 일부를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자와 생쥐의 책처럼 글이 전혀 없는 그림책을 봤습니다.

그 그림의 장면들을 각각 그림읽기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의 중점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

바로 자유롭게 그림읽기하며 만든 상황들을 타인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이야기를 장면별로 이어보았을 때 이어짐이 자연스러운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장면의 전후관계를 잘 살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읽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이고

자유롭게 그림을 읽어 자율 표현하여 이야기를 만든 후 그 각각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과정이 곧 토론입니다. 초반에 수업은 스토리텔링에 중점이지만 어느정도 단계가 올라가서 스토리텔링 능력이 좋아지면 토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은 창의적 사고의 자극이고

토론은 비판적 사고의 자극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먼저 형성되어야하느냐? 바로 스토리텔링 능력이 먼저 향상 되어야합니다.

대체적으로 7세 이전에는 스토리텔링 능력

7세 이후~10세 그 이상에는 토론 능력을 향상시켜야합니다.

사고력 또한 창의적 사고가 잘되어야 그 창의적 사고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율 토론을 하더라도 그림의 장면 등을 자유롭게 해석해내지 못하면 절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해석이 너의 해석이 맞는지 적절한지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율토론은 시작은 자율이죠. 그 자율이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자율 토론입니다.

연구소 모든 교육용 자료는 연구소 서적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구어체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무단 복제 및 원본 유출 등 재사용은 하지 않습니다.